

# 일라이저 - 넘버 텐

Jeff Pippenger

2023-10-13

## 천팔백오십육

밀러파 운동은 기원전 742년에 시작된 65년의 예언으로 이사야 7장에서 상징되었다. 이사야의 역사에서 일어난 그 65년은 1798년부터 1863년까지의 65년을 나타낸다.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시작과 함께 끝을 보여 준다. 그 65년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일곱 배의 저주를 가리킨다. 북왕국에 대한 첫 번째 일곱 배의 저주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 예언을 전한 지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었다. 남왕국에 대한 마지막 일곱 배의 저주는 그 65년의 끝인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었다.

에브라임을 향한 첫 번째 일곱 배의 저주는 1798년에 끝났는데, 그때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올라이 강 환상의 봉인이 풀린 종말의 때였다. 이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도래와 밀러파 운동의 예언적 시작을 함께 알리는 표지가 되었다. 유다를 향한 마지막 일곱 배의 저주는 1844년에 끝났는데, 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도래였다. 그로부터 19년 뒤인 1863년에, 예언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된 65년은 밀러파 운동의 종결과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었다. 1863년보다 7년 앞선 1856년에 제임스 화잇은 밀러파 운동이 더 이상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음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자는 엘렌 화잇의 전기를 집필하면서 1856년의 역사와 라오디게아 기별에 대해 기록한다.

## 라오디게아의 메시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세기를 거쳐 기독교 교회가 겪어 온 경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들이 이제 '명목상의 재림교인들', 즉 일곱째 날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10월 9일자 Review에 실린 짧은 사설에서 제임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어 생각을 자극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파수꾼아, 밤이 어때하냐?'라는 물음이 다시금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그 주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던지는 몇 가지 질문만을 실을 지면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충분한 답변이 주어지리라 믿는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56년 10월 9일

그가 던진 열한 가지 질문 가운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여섯 번째였다.

6. 라오디게아인들의 상태(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 하는 무리의 상태를 적절히 보여 주지 않는가?-같은 곳.

마지막 질문은 사안을 드러낸다:

11. 만일 이것이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형편이라면, 우리가 '참된 증인'의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만한 실제적 근거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네가 부요하게 되도록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3:18-21.-같은 곳.

제임스 화이트가 그 문제의 진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음이 분명하다. 리뷰의 다음 호에는 그 제목 아래 일곱 교회에 대한 일곱 단으로 된 기사가 실렸다.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몇몇 현대 주석가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이 일곱 교회는 기독교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일곱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기독교 교회의 일곱 가지 상태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곳, 1856년 10월 16일.

그는 이어 예언을 다루되, 각 교회를 따로따로 다루었다. 일곱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러 그는 선언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슬픈 묘사는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 두려운 묘사가 우리의 현재 형편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낸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꿰뚫는 증언의 힘을 피하려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ibid.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칼럼 두 편을 할애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강력히 호소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이 일을 즉시 붙들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복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같은 곳"

현장의 반응은 전율을 일으킬 정도였다. 오하이오의 G. W. Holt는 10월 20일 이렇게 썼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연단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구하는 일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같은 곳, 1856년 11월 6일.

북동부에서 이 주제에 관해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매사추세츠주 프린스턴의 Stephen N. Haskell이었다. 그는 첫째 날 재림교인으로서 스무 살에 설교를 시작했으며, 이제 3년 뒤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르게 되었다.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던 그는, 일곱 교회의 문제를 소개하는 White의 짙막한 첫 사설을 본 뒤,

Review를 위해 보다 긴 글을 쓰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주제는 지난 몇 달 동안 내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 내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그 기별이 우리,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나는 한동안 믿게 되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겠다.-같은 곳.

그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결론에 지면 두 단을 할애했다. 끝맺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 예복, 곧 성도들의 의가 없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론만으로는 결코, 아니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같은 책.

제임스 화이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에 관한 사설을 계속해 나가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이 이제 리뷰에서 읽고 있던 개념들은 놀라웠지만, 사려 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보니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보였다. 편집자에게 보내진 편지들은 대체로 폭넓은 동의를 보여 주었고, 부흥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감동적인 기별이 단순한 흥분의 산물이 아님은 1857년 4월에 출판된 『증언』 제3호의 첫 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가 입증해 주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주께서 환상 중에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몇 가지를 내게 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T, 141쪽. 여기에서 엘렌 화이트는 세속적 번영과 재물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세에 관해 자신에게 보인 바를 제시했다. 아서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초기 생애』, 제1권, 342-344쪽.

밀러파 운동은 예언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로 시작하여 1856년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되었다. 그로부터 7년 뒤 그 운동은 끝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시작하여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실 때까지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14만 4천의 운동은 밀러파 운동이 사데 교회의 무리에서 나온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리에서 나왔다. 14만 4천의 운동은 첫 번째 운동이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 바뀌었듯 마지막 운동은 라오디게아에서 필라델피아로 바뀐다는 점에서 밀러파 운동과 평행을 이룬다. 밀러파 역사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의 전환점은 1856년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마지막 운동에서도 그 전환점이 또한 표시되어야 한다. 그 전환점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두 선지자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확인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그 큰 성의 거리 위에 누울 것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요한계시록 11:7, 8.

마지막 운동은 죽었다가 다시 서고, 그 후에 기치로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화주의의 뿌리와 발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 공화주의의 뿌리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이 본뜬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루어진다. 그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다섯째 머리로 규정되며, 여덟째 머리로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로서 부활할 것이다.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도 여덟째이며 일곱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7:11.

공화주의의 뿔은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이며, 그로 인해 그것은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부활했을 때, 이전의 일곱 머리에서 나온 여덟째 머리가 될 것이다. 개신교의 뿔은 공화주의의 뿔과 같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타고 있으며, 동일한 예언적 역학을 지녀야 한다. 밀러주의 운동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의 전환은 마지막 운동에서 라오디게아에서 필라델피아로의 전환을 예표한다.

마지막 운동이 2020년 7월 18일 치명상을 입었을 때, 그것은 라오디게아로서 죽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표상된 바와 같이 그것이 빌라델비아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교회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2020년의 그 죽음은 공화당의 뿔과도 병행되었는데, 1989년 끝의 때 이후로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고, 그 상처는 2024년에 치유될 것이다. 그 머리는 그러면 1989년 끝의 때 이후 미국의 여덟째 머리가 될 것이며, 일곱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두 뿔 모두 여섯째였다가 여덟째가 되는 것이었다. 이 진리는 은혜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현재 역사를 예표하는 밀러주의 역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이트 자매는 1856년에 제임스 화잇이 이 운동을 라오디게아로 적용한 것을 확증했으므로, 이것은 인간의 논리에서 도출된 적용이 아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공화주의의 뿔과 법적으로 연결되기 7년 전에, 그 교회는 영감에 의해 라오디게아 교회로 식별되었다. 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역사에 단 하루도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예언적 현실은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가증한 일들을 재림주의의 네 세대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맥락과 정당성을 제공한다.

밀러파의 역사를 이사야 7장의 65년이라는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일곱 때'의 예언이 밀러파 운동의 전 역사를 포괄하는 예언적 큰 틀임을 알 수 있다. 1856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밀러파 재림주의 진영에서 현재 진리가 되었다.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제시한 이는 제임스 화잇이나 엘렌 화잇이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재물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14-22.

참된 증인께서는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들어와 그와 함께 “식사하실” 것이라고 밝히신다. 라오디게아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게 허락하면, 그분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상징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라오디게아의 메시지라고 일반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분이 제시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1856년에 하이럼 에드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가 깨닫고 선포하도록 이끌었던 최초의 “때에 관한 예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주는 예언적 정보를 담은 여덟 편의 글 시리즈를 발표했다. 그 여덟 편의 글에서 에드슨은 이사야 7장의 65년을 정확히 규명했다.

밀러의 사역의 시작은 ‘일곱 때’의 발견이었고, 그의 사역의 이름을 딴 운동이 끝나기 7년 전에, 바로 그 예언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밀러주의 재림운동에 제시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영감에 의해 라오디게아인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해에 제시되었다. 예언적으로, 2,520일 후인 1863년에 밀러의 첫 번째 ‘예언의 때’에 대한 발견이 거절되었다. 재림운동을 위한 라오디게아 기별은 1856년에 도착했고, 주께서는 들어가실 수 있는지 보시려고 여덟 편의 글로 문을 여덟 번 두드리셨다. 운동의 끝무렵, 참 증인은 운동의 시작부터 있었던 바로 그 첫 번째 ‘때’의 기별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백성과 함께 만찬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은 먹기를 거절했고, 7년, 곧 예언의 2,520일 후에, 그분의 백성은 윌리엄 밀러의 손에 맡겨졌던 다윗의 열쇠로 열려 있던 그 문을 닫아버렸다. 그들은 그들에게 거짓을 먹인 사마리아에 있던 늙은 선지자에게로 돌아갔고,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을 운명을 스스로 봉인했다.

1856년에 개신교의 뿔은 비전의 골짜기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하기 때문이다. 1856년에 공화당의 뿔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1856년에는 ‘피의 캔자스’로 알려진 캔자스-미주리 변경 전쟁이라는 폭력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 투쟁은 캔자스가 연방에 자유주로 편입될지 노예주로 편입될지를 둘러싼 것이었다. 이 갈등에는 친노예제와 반노예제 정착민들 사이의 폭력적 충돌이 있었다.

1856년 5월 22일, 미국 상원 회의장에서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노예제 옹호자였던 하원의원 프레스턴 브룩스가 지팡이로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 찰스 섬너를 잔혹하게 공격한 것이다. 섬너는 ‘캔자스에 대한 범죄’라는 제목의 반노예제 연설을 했고, 이는 브룩스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었다. 이 매질 사건은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고조되는 긴장을 부각시켰다.

1856년에 공화당은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에 대응하여 창당되었으며, 이 법은 새로운 영토로의 노예제 확산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지게 했다. 당의 첫 전국 전당대회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렸고, 1856년 선거에서 존 C. 프리몬트가 이 당의 첫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은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준주를 조직하고, 그 영토 내에서 노예제를 허용할지 여부를 정착민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주민 주권’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루이지애나 준주에서 북위 36도 30분선 이북의 노예제를 금지했던 1820년 미주리

타협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 법은 준주 내 노예제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캔자스를 비롯해 이전에는 자유 지역으로 간주되던 곳에도 노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지역 간 갈등을 다시 불붙였다.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의 통과는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 정착민들이 캔자스 준주로 몰려들게 했고, 각자 주민 주권에 따른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준주의 통제권을 둘러싼 이러한 경쟁은 1856년에 '피의 캔자스'로 알려진 폭력적 충돌과 무법 상태의 시대로 이어졌다.

1856년의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 선거는 민주당의 제임스 뷰캐넌, 공화당의 존 C. 프리몬트, 그리고 아메리칸당의 전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간의 3자 대결로 치러졌다. 제임스 뷰캐넌이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의 제15대 대통령이 되었다.

제임스 뷰캐넌의 대통령직은 북부와 남부 사이의 커져 가던 긴장과 분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그의 퇴임 직후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도력과 위기 관리의 중대한 실패 때문에 그의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직 가운데 하나로 흔히 평가된다.

1857년의 악명 높은 드레드 스콧 판결은 노예들이 노예 상태이든 자유인이든 시민이 아니며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의회는 미합중국의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뷰캐넌은 친노예제적인 드레드 스콧 판결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당 소속 뷰캐넌의 노예제 옹호 입장은 긴장이 고조되어 남북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관리하지 못한 그의 무능은 1857년 공황을 초래했는데, 이는 대공황 이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기 침체 가운데 하나였다. 1857년 공황은 수년에 걸친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고, 실업이 증가했으며, 주식시장은 하락했다.

뷰캐넌 대통령 재임 중 남부 주들은 연방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시작했으며, 1860년 공화당 소속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되자 이에 대응해 탈퇴했다. 뷰캐넌은 연방 정부가 강제로 탈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탈퇴 위기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결단력 있는 조치의 부재는 탈퇴 운동이 탄력을 얻도록 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와 탈퇴 위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주저한 태도는 남부가 군사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도 연방을 떠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

1860년 공화당 출신 첫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되었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은 남부연합이 장악한 지역의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고 선언한 최종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하여 공포했다. 이 행정명령은 전쟁의 목적을 연방 보존뿐 아니라 노예제 폐지까지 포함하는 투쟁으로 바꾸며 남북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노예해방선언이 즉시 모든 노예를 해방한 것은 아니었다. 이 선언은 특히 연방 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었던 남부연합 점령 지역에 적용되었다. 연방군이 전진하여 남부연합 지역을 장악해 가면서 선언이 집행되었고, 그 지역의 노예들은 해방되었다. 노예해방선언은 미국에서 결국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로 나아가는 중대한 발걸음이었으며, 1865년 12월 6일에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통과·비준되는 데에도 길을 열었다.

1850년대 이후 공화주의의 뿌은 노예제 문제라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나라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분열이 두 가지 주요한 정치 사상 계열에 의해 대변되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집단과 찬성하는 집단이 자신의 노예제에 대한 견해를 지키려는 시도로 캔자스 준주로 이동하면서 1856년에 분리 과정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때 필라델피아가 라오디게아로부터 분리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노예제 찬성이었고 공화당은 노예제 반대였다.

1856년에 블리딩 캔자스는 다가오는 전쟁의 축소판을 보여주었다. 그해에 노예제 찬성 민주당원이 Republican horn의 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의 무능한 리더십은 최근의 이 마지막 날들에 이르기까지 무능한 대통령직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뷰캐년의 대통령직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도록 강요받은 첫 공화당 대통령에 앞서 있었다.

1863년에 이르러,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에서 공화당의 뿌이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행정명령은 노예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 포고문의 한 단락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서기 1863년 1월 1일에, 그 주민들이 그때 미합중국에 반란 상태에 있는 어떠한 주 또는 주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의 행정부는, 그에 속한 군과 해군의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며, 그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에 있어서도, 그들 전체 또는 그중 누구에 대해서도 억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점에서 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역사적으로 미완성이었지만, 링컨이 "어느 주 안에서 노예로 억류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썼을 때 헌법의 본질이 인정된다.

링컨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규정하는 헌법에 표현된 근본 원칙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링컨이 근본적 진리들로 되돌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개신교의 뿌은 자신의 근본적 예언, 곧 노예제의 예언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의 뿌이 노예제와 관련하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던 바로 그때, 개신교의 뿌은 모세의 맹세와 저주로 대표되는 노예제의 예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예언적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공화주의의 뿌은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지만, 개신교의 뿌은 자신의 근본을 거부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

1863년에 공화주의의 뿌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다. 1863년에 개신교의 뿌은 벤엘과 단에 있는 여로보암의 두 제단으로 상징되듯, 법적으로 공화주의의 뿌에 결합되었다. 그 두 뿌은 역사 속에서 서로 나란히 전개되며, 특히 1863년의 역사는 말세의 역사를 대표한다.

밀러주의 역사는 몇 가지 예언적 단서를 수반하며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그 단서 중 하나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목표 대상이 먼저 운동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운동 자체였다는 점이다. 십사만 사천의 운동에서는 계시록 18장의 두 음성이 두 대상 집단을 지목하지만, 그 대상은 밀러주의 역사와는 반대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 음성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향한다.

또 다른 예언적 주의점은, 비록 두 역사 모두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만, 밀러주의자들은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옮겨갔고, 셋째 천사의 위대한 운동은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는 밀러주의자들이 여섯째 교회에서 일곱째 교회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며, 14만 4천은 일곱째 교회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 교회로 옮겨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화당의 뿔은 1863년 전후의 역사 속에서 노예제 찬성 국가에서 노예제 반대 국가로 향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 역사적 위기는 이 "마지막 날들"에도 동일한 적대자로 남아 있는 두 정당을 확립했다. 그 역사에서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 전쟁이 끝난 지 며칠 만에 암살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암살당해 온 세상이 기뻐하는 동안 길거리에 죽은 자처럼 버려졌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뒤에 암살된 것이 아니라, 최후의 내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암살되었다.

첫 공화당 대통령 앞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있었고,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 앞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첫 공화당 대통령에 앞섰던 민주당 대통령의 무능은 내전으로 발전한 위기를 촉발했고, 지금 그와 같은 무능이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에 앞설 민주당 대통령은 경제를 그렇게 운영해 그 시점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 두 뿔은 일요일 법령에 이를 때까지 나란히 간다. 1863년에 두 뿔 모두의 첫 세대가 시작되었고, 두 뿔 모두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는 동쪽을 향하고 태양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엘리아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항상 함께 온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든 글로벌리스트 기술 거대기업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지금 엄청난 위기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밤이 어떠한가?' 나는 이 메시지들의 중대한 의미를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이 메시지들이 위대한 구속의 체계의 마무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그토록 익숙하여,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오실 왕이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생각할 때 내게 부여된 책임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를, 멸망해 가는 자들을 구하기 위한 올바르게 방향 잡힌 노력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미지근하고 무관심하여, 악한 세상과 어느 정도 뒤섞인 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과 능력을 주로 자기만족에 사용하며, 그의 사업의 진전보다 나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더 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나팔에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세상에서 점점 힘을 얻어 가는 확신을 도리어 강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불의 때문에 세상을 벌하시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임박했습니다. 세상 거민들이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여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가라지들과 함께 묶이겠습니까? 해마다 수천, 또 수천, 그리고 십만의 영혼들이 멸망하며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진리의 빛이 그들의 길 위에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총회 일일 회보,

1897년 4월 1일.

밤에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고, 참으로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부지런히 주를  
구하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리라. 이사야 26:9.